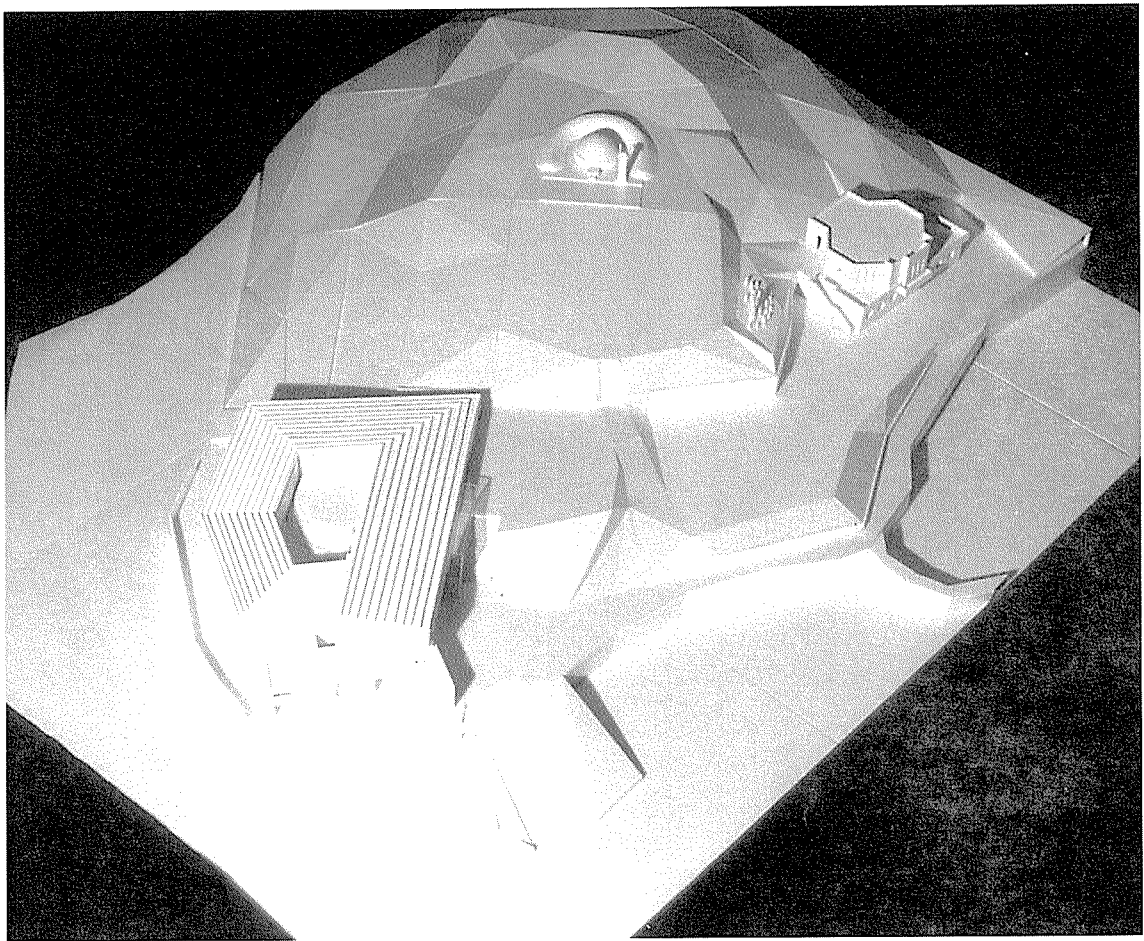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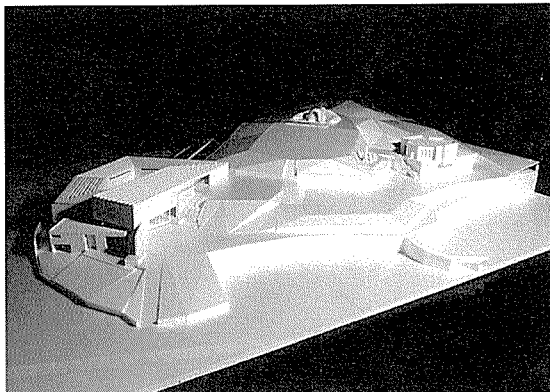
제암리 3.1운동 순국 유적지 기념관

Jeam-ri Martyr Memorial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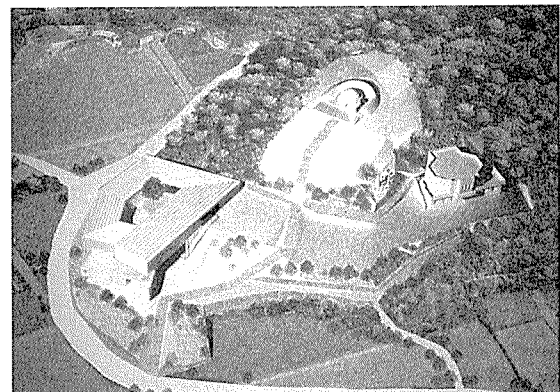
임재용 / 건축사사무소 오. 씨. 에이.
by Lim Jae-Yong



모형 1



모형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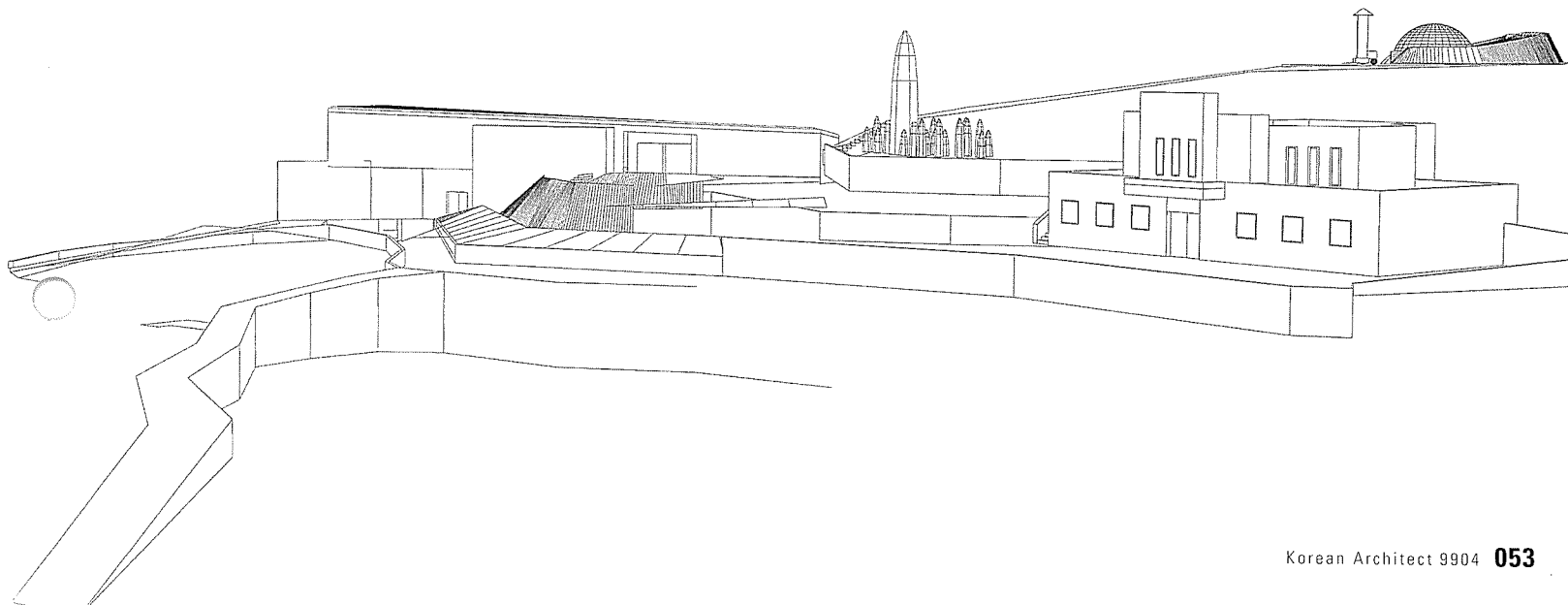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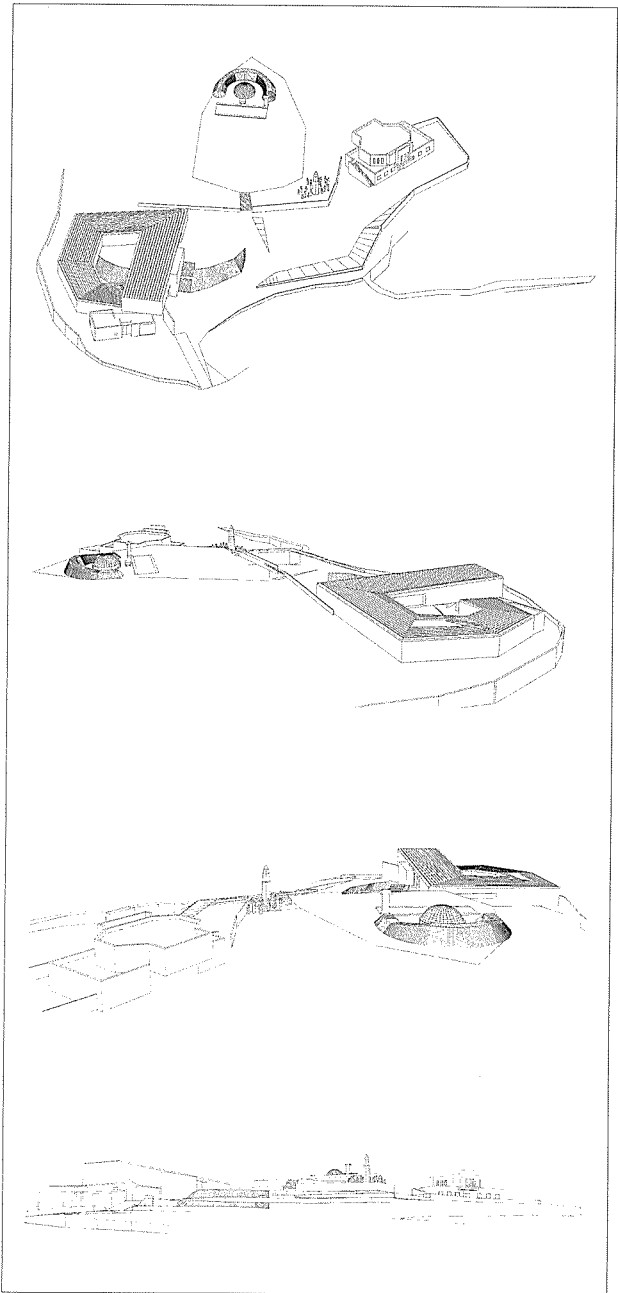


조감도

이 프로젝트는 필자에게 큰 의미가 있다. 건축이 '흔적 읽기이며 흔적 만들기'라는 생각을 일깨워준 프로젝트이다. 미국에서 작업할 때는 물론이고 귀국하여 일산 신도시의 주택 프로젝트를 할 때까지 '대지 읽기'를 하는 작업의 태도는 크게 변함이 없었던 것 같다. 미국에서도 주로 로스엔젤스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자연이나 땅의 흐름 등을 다루어 볼 기회는 많지 않았고 컨텍스트를 읽어내고 거기에 기대기 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컨텍스트를 만들어내는데 열심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귀국해서 처음 완공한 일산 주택 프로젝트에서도 분명히 한국 땅에서 하는 작업인데도 일산 신도시라는 도시의 특성이 서구적(?)이어서인지 한국적인 땅의 맛(?)을 느끼지 못하였다. 그나마 한국이라는 땅이 다르구나 하는 점을 처음 느끼면서 했던 작업이 강화도에 위치한 연동교회 수양관이었다. 이 프로젝트에서 처음 맛보기 시작한 '흔적 읽기'라는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시킨 것이 바로 제암리 기념관 프로젝트이다.

나름대로 열심히 작업했지만 심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묻혀 버린 프로젝트다. 주최측이 밝힌 "대지 자체가 사적지로 지정된 곳이고 주변에 있는 집들이 대부분 한옥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이곳 제암리를 찾는 관광객의 3분의 2 이상이 일본인이기 때문에 전통과 현대의 접목을 가장 중요시 했다."는 심사위원 선정 경위 설명은 본인에게 '전통과 현대의 접목이란 무엇인가?'라는 묵직한 숙제를 안겨 주었다.

이 프로젝트도 '건축 행위는 대지가 지니고 있는 흔적을 읽어 내고 읽어낸 흔적을 재해석하여 새로운 흔적을 만드는 작업이다'라는 본인의 사고 체계를 따라 진행되었다. 현장 답사를 통해 읽어낸 흔적들을 재해석해서 새로운 흔적을 만들어낸 과정을 소개하려고 한다.



흔적 읽기

길과 축대: 첫 번째 대지 답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여러 방향에서 대지까지 이르는 길과 축대들이었다. 자연석으로 포장된 길은 그 돌들의 크기에 따라 그 맛이 달랐고 마을 어귀에서 묘역까지 자연스럽게 동선을 이끌고 있었다. 길과 나란히 달리는 축대 또한 땅의 흐름과 시간의 흐름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듯 했다. 이 축대는 묘역 바로 아래에서는 마치 배경의 역할을 하는 듯이 느껴졌고 계획하려는 기념관도 마치 이 축대의 연장처럼 묘역의 배경이 되는 단순한 벽이 되도록 해야겠다는 디자인 모티브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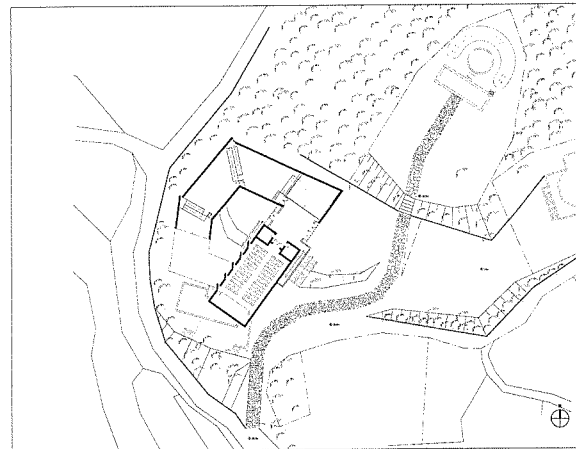
기존 교회의 중정: 대지에는 당국에서 철거하기로 결정한 관청은 기념관이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기념관을 헐고 그 자리에 기념관을 세우기로 되어 있다. 이 건축물의 건축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아마 알바 알토를 좋아했던 분인 것 같다. 조그마한 중정이 좋았고 중정을 중심으로 배치된 전시장에서는 공간의 흐름도 읽혀졌다. 이 교회는 철거하더라도 중정과 중정을 중심으로 흐르는 전시 공간의 느낌은 그대로 재현하고 싶었고 중정에 있던 나무 한 그루와 기념비는 새로 만들 중정에 옮기기로 생각하였다.

윗마당과 아랫마당: 현재 목사님 사택 앞에 아랫마당이 있고 그위로 3m정도 위에 기존 기념관의 진입 마당인 윗마당이 있다. 이 두 마당은 계단과 휘어져 오르는 길로 연결되어 있는데 새로운 기념관에서도 이 두 개의 마당을 그대로 살리고 계단과 오르는 길도 그대로 다치지 않게 계획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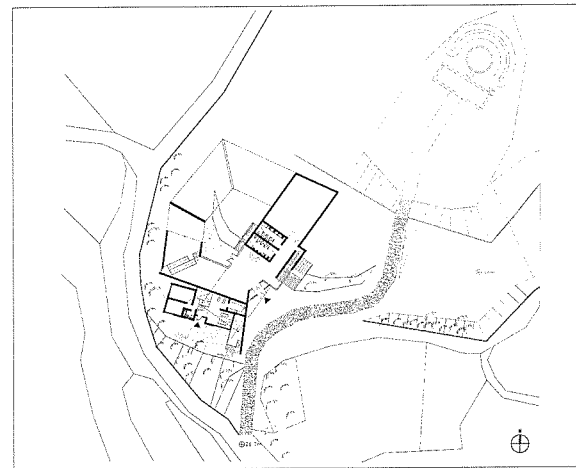
묘역: 기존 묘역은 대지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아래쪽으로 비교적 좋은 조망을 가지고 있다. 기존 교육관 및 기념 조각상도 묘역에서의 조망을 가리지 않도록 비껴서 위치해 있다. 새로 지어질 기념관은 묘역을 담을 수 있는 간단한 배경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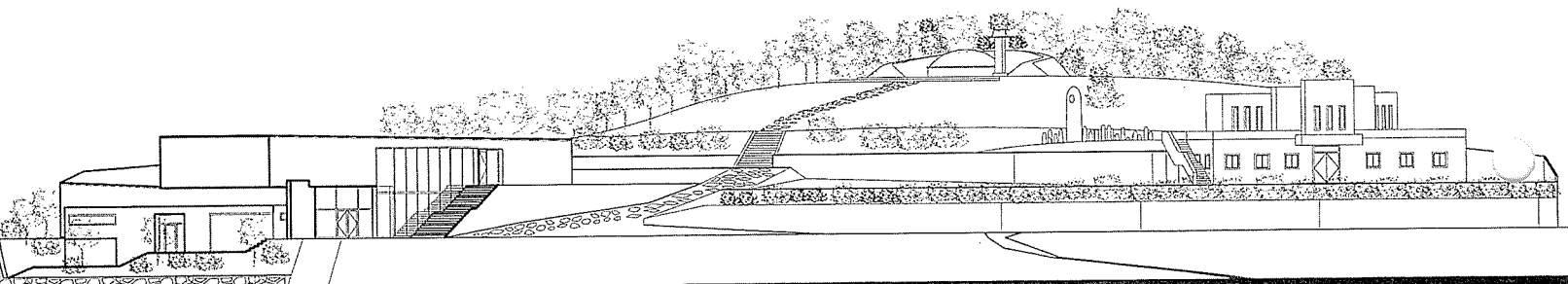
배치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흔적 만들기: 흐름

읽어낸 흔적을 근거로 조심스럽게 새로운 흔적을 만들어 나간다. 제안된 기념관은 그 자체만으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묘역을 중심으로 전체적 조화를 이루도록 단순화된 매스의 움직임으로 계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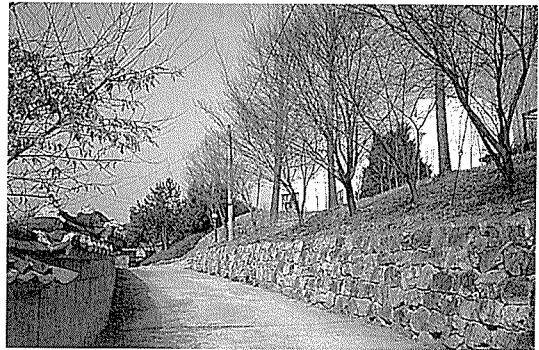
축대의 흐름: 단순한 매스의 움직임은 기존 축대의 이미지를 읽고 재해석되어진 결과이며 건물이 기존 축대의 움직임의 연장이 되고 땅의 형세를 그대로 반영하는 형상이 되도록 계획되었다. 이러한 매스의 움직임은 기존의 기념관의 전시 공간을 중정을 중심으로 흘렀던 것처럼 새로운 중정을 중심으로 흐른다. 이러한 흐름은 윗마당에서 시작하여 아랫마당으로 흘러 내려가게 되고 지존의 지형에 자연스럽게 순응한다.

길의 흐름: 기존의 길의 체계를 그대로 연장하여 길이 만나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건물의 입구가 생기고 외부의 길의 흐름이 내부로 흘러든다. 또한 묘역에 이르는 기존 길들은 고스란히 보존되고 새로운 기념관은 기존의 동선 체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계획되었다.

시간의 흔적 남기기 - 중정: 가운데 남겨진 중정은 기존 기념관의 중정을 재현한 것이며 기존 중정에 있던 기념탑과 나무를 그대로 옮겨서 과거의 흔적을 느끼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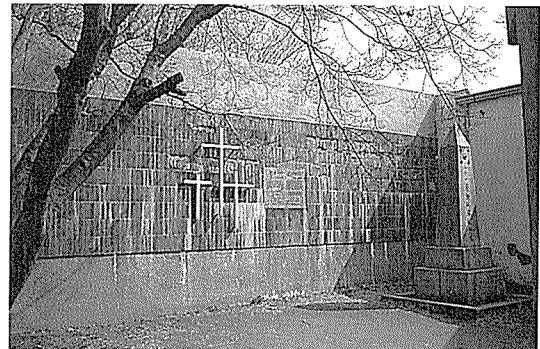
묘역과 묘역에 이르는 길



대지에 이르는 축대와 길



기존 기념관과 길의 흐름



기존기념관의 중정: 나무와 기념탑은 새로운 중정에 그대로 옮기도록 계획

